

남부슬라웨시 전통문자의 형성과 역할

조 태 영*

I. 들어가는 말

문자학의 창설자인 겔브(Gelb 1952: 222)는 “문자 없는 문명의 발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천명한바 있다. 이는 문자와 문명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구체적인 삶의 표현을 하고, 문자를 통해 그 표현을 가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정되어 영속화된 삶의 표현은 ‘문화’를 일구는 토대가 된다. 인류사의 모든 문명발상지가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자가 문명발전의 척도(Coulmas 1989: 4)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처럼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자가 사용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원 후 5세기에 처음 전래된 인도계통의 문자들과 14세기부터 사용된 아랍변종문자들은 로마알파벳이 소개되기 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각 지역사회의 언어를 기록하고 지역문화를 일구어냈다. 이들은 계통과 유형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 약 20여종이 넘는다(조태영 2012c). 인도네시아의 지역사회에서 고유의 전통문자를 발전시켰던 종족은 13개 종족인데(조태영 2012a: 146), 이들은 과거에 왕국을 건립하여 자신들만

* 한국동남아연구소, cctaeyoung@gmail.com 본고를 읽고 건설적인 제안과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의 독특한 문화를 창달한바 있다.¹⁾ 즉, 문자와 문화(문명)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부술라웨시(South Sulawesi)는 인도네시아 여타지역들보다 고래로부터 문자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다른 지역에서는 많아야 두 가지 이상의 전통문자를 발전시키지 못한 반면, 남부술라웨시에서는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의 문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사회에서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의 문자가 사용된 곳은 인도네시아에서 남부술라웨시가 유일하다. 이 문자들은 인도계통의 음절문자인 ‘술라과으과(Sulapaq Eppaq: 사각형四角形)문자’와 ‘장양장양(Jangang-jangang 또는 Manuq-manuq: 계형鷄形)문자’, 그리고 아랍문자의 변종인 ‘세랑(Sérang)문자’ 마지막으로 인도계통의 음절문자이면서 문자소는 아랍문자 형태에 기본을 두는 ‘빌랑빌랑(Bilang-bilang: 숫자형數字形)문자’이다.

예로부터 남부술라웨시에 많은 종류의 문자사용이 발달된 배경으로는 이 지역의 다수종족인 부기스(Bugis)족과 마카사르(Makassar)족의 문기(文氣)²⁾에 대한 남다른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남부술라웨시의 부기스족을 평생 연구한 인류학자 펠라스(Pelras 2006: 397)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부기스족의 삶에 대한 강한 역동성과 창의성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척정신은 일찍이 이들에게 문식성(literacy)을 태동케 해준 근원이었다. 이들의 신화인 ‘라 갈리고(La

1)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전통문자를 발전시킨 13개 종족은 다음과 같다. 이들 모두는 백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다. 1)자와(약 75,200,000명), 2)순다(약 27,000,000명), 3)말레이(약 20,000,000명), 4)마두라(약 13,694,000명), 5)미낭카바우(약 6,500,000명), 6)바타크(약 5,150,000명), 7)부기스(약 4,000,000명), 8)발리(약 3,800,000명), 9)아체(약 3,000,000명), 10)사삭(약 2,100,000명), 11)마카사르(약 1,600,000명), 12)람퐁(약 1,500,000명), 그리고 13)레장(약 1,000,000명)이다.

<http://www.bakosurtanal.go.id/perpres/Bab%2011.pdf/>

2) ‘문기(文氣)’는 인문의 전반적인 축을 이루는 문자의 발명과 기록을 중시하는 정신,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공정하게 보존하려는 수준 높은 의식이 담겨진 문화의 기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준식 2007: 7).

Galigo)³⁾가 현존하는 세계최장의 대서사시 기록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사실과 ‘인도네시아국립문서국(ANRI, Arsip Nasional Republik Indonesia)’에 보관된 각 지역의 고문헌 중 남부술라웨시 고문헌(총 5,845권, PaEni 2003: 949-979)의 비중이 높다는 것(Tol 1996: 213)은 남부술라웨시에 일찍이 높은 문식성이 발달되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자와 문화(문명)의 긴밀한 연관성에 기댄다면,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들은 관련 지역의 문식성과 문기발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인도네시아 남부술라웨시(South Sulawesi)에 일찍이 문식성과 문기의 척도가 되어온 전통문자들의 형성배경과 관련 사회 내에서 각 문자의 사용영역 및 그 역할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에 대한 조명은 남부술라웨시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미비한 국내학계의 향후연구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대 전통문자들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⁴⁾ 본고는 남부술라웨시의 언어사회와 전통문

3) ‘라 갈리고(La Galigo)’는 부기스족의 기원과 삶을 운문형식으로 표현하여 기록한 대서사시이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라 갈리고의 유일한 문헌은 19세기 중반 남부술라웨시에 체류하던 네덜란드인 선교사 매테스(Matthes, B. F.)의 부탁으로 부기스족의 왕족인 콜리 푸지에(Colliq Pujie)가 남부술라웨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하나로 취합하여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로 재정리한 것이다(Rahman 2008: 116). 기록된 원고는 2질지로 6,000페이지가 넘으며, 현존하는 세계최장의 대서사시 기록물로 추정되고 있다(Tol 1996: 222). 현재 라 갈리고의 원본은 레이든(Leiden) 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Tol 1996: 222), 2011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라 갈리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Tol(1996)과 Pelras(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남부술라웨시는 몇 해 전 한글을 받아들여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짜아찌아(Cia-Cia)사회화도 인접해 있다. 남부술라웨시가 일찍이 많은 종류의 전통문자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짜아찌아사회의 한글 선택이 관련 지역의 문자부재였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고는 관련 지역의 어문(語文)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국내학계의 학술적 반성 또한 부수적으로나마 시사해 줄

자의 전반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이를 위해, 제 2 장에서는 남부술라웨시의 지역어 상황과 더불어 이들을 기록했던 전통문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내외 학계의 연구사를 훑어본다. 그리고 제 3 장에서는 ‘문자단일기원설(monogenesis of writing)’을 바탕으로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형성배경을 설명하고 계통과 유형에 따른 각 문자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계속해서 제 4 장에서는 각 전통문자들이 남부술라웨시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그 사용영역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날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들이 처한 현실과 운명을 예견해보는 것으로 본고를 마친다.

II. 남부술라웨시 언어사회와 전통문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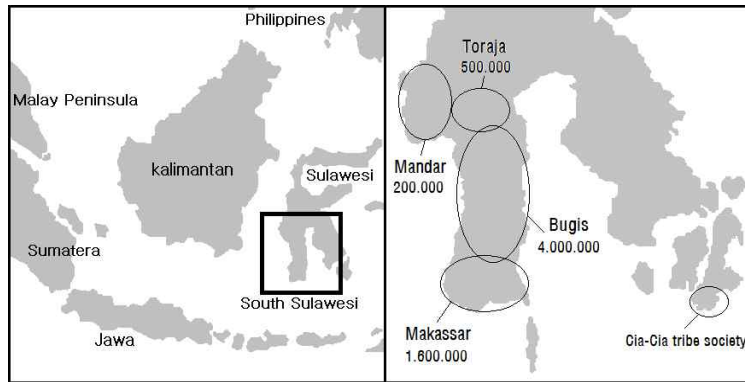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하계언어학회(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술라웨시에는 114개의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다(Lewis 2009: 442). 많은 수의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에 걸맞게 술라웨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섬(면적 174,600 km²)이며, 6개의 행정주로 나뉘어져 있다.⁵⁾ 이 중 남부술라웨시는 하나의 행정 주(州)이다. 남부술라웨시에는 약 30개의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4개 주요언어인 부기스(Bugis)어, 마카사르(Makassar)어, 토라자(Toraja)어, 만다르(Mandar)어와 약 9만 명의 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찌아찌아사회가 한글사용을 시작할 당시 인도네시아 언어학자들은 찌아찌아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화권인 술라웨시 내의 전통문자들을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Cho 2011).

5) 약 1천 9백만 명의 인구(2014년)가 거주하는 술라웨시는 6개 주로 나뉜다. 남부술라웨시, 중부술라웨시, 서부술라웨시, 북부술라웨시, 동남부술라웨시, 그리고 고론탈로 주(州)이다. <http://id.wikipedia.org/wiki/Sulawesi>

용자를 지닌 두리(Duri)어와 슬라야르(Selayar)어와 같은 몇몇 언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용자 1만 명 내외의 소수언어들이다(Lewis 2009: 798-799). 이 중 4개의 주요언어와 사용자 수는 각각 부기스어가 약 4백만 명, 마카사르어가 약 1백 6십만 명, 토라자어가 약 5십만 명, 그리고 만다르어가 약 2십만 명이다.⁶⁾

<그림 1> 남부술라웨시 언어사회



출처: (조태영 2012a: 133)

상기 4개의 주요언어 중 일찍이 고유문자를 발전시키고 사용한 언어사회는 부기스(Bugis)와 마카사르(Makassar)사회뿐이다. 토라자(Toraja)사회는 독특한 매장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구술전통을 간직하고 있지만, 고유의 문자체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토라자사회의 기록물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전 이곳을 방문한 네덜란드인 선교사들이 로마알파벳을 이용하여 기록해둔 문헌들이다(Tol 1996: 213). 한편, 만다르(Mandar)사회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지 못했지만 종종 부기스의 슬라파으파문자로 기록된 많지 않은

6) 인도네시아의 지역어와 사용자 수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bakosurtanal.go.id/perpres/Bab%2011.pdf/>

수의 만다르어 고문헌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보아 인접한 부기스사회의 문자를 차용하여 만다르어에 맞게 변용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Cho 2010: 15). 만다르어 문헌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언어학자인 톨(Tol 1996: 213)은 지리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를 든다. 즉, 지리적으로 만다르사회가 남부술라웨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기스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남부술라웨시에서 막강한 세력을 떨쳤던 부기스와 마카사르의 두 왕국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문식성의 발달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기스와 마카사르사회는 남부술라웨시에서 언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다수사회로서 일찍이 화합과 경쟁을 통해 남부술라웨시의 문화를 주도해 왔다(조태영 2012a: 133). 따라서 다른 종족들보다는 두 종족 간의 사회-문화적 접촉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접촉은 ‘부기스-마카사르(Bugis-Makassar)’라는 두 종족 간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동화를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Pelras 2006: 16). 두 종족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방언학적 차이가 남부술라웨시의 지역어들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다른 종족이지만(Mills 1975: 492), 본인들도 종종 자신들의 종족적 정체성을 양 종족을 융화시켜 ‘부기스-마카사르(Bugis-Makassar)’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동화 때문이다. 두 종족 간의 사회-문화적 동화는 전통문자들의 발전과 사용에도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양상을 불러왔다. 초기에 부기스어를 기록했던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는 19세기를 시작으로 마카사르어 문자인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자 마카사르어를 함께 기록하는 문자로 발전되었으며(Tol 1996: 214), 오늘날에는 론타라(Lontaraq)라는 이름으로 마카사르어 문자로 더 알려져 있다. 또한, 이슬람 문명의 유입과 함께 소개된 세람

(Sérang)문자는 마카사르족이 먼저 이슬람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스와 마카사르 양 언어사회에서 이슬람 경전의 번역과 교육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었다. 두 언어사회의 경계 없는 문자의 사용과 발전은 부기스족과 마카사르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동화되는 과정에서 문식성이 함께 발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가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19세기 중반 성경번역을 위해 남부술라웨시를 방문한 네덜란드성서공회(Netherlands Bible Society)의 매테스(Matthes, Benjamin Frederik)는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를 연구한 최초의 서구인이었다. 당시, 술라파르문자와 장양장양문자로 기록된 지역문헌들은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를 연구하던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성경번역을 위해서는 음성언어의 분석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문자자체의 연구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사실, 매테스 이전에도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있어왔지만 이들의 관심은 문자학 이론을 중심으로 문자의 계통과 유형 및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보다는 각 문자소의 형태와 표기음소에만 집중되었다.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가 서구인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세기 초 영국령 자와(Jawa) 지역의 부총독이었던 래플즈(Raffles, Thomas Stamford)가 저술한 ‘자와의 역사(The History of Java)’에서이다 (Raffles 1817: clxxxviii).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는 부기스어의 술라파르문자를 ‘부기스-마카사르문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발리와 술라웨시에서 근무했던 크라우퍼드(Crawfurd, John)는 그의 저서 ‘인도군도의 역사(History of Indian Archipelago)’에서 술라파르문자를 부기스어의 ‘우기(Wugi)’문자⁷⁾로 정확히 소개했다

7) ‘우기(Ugi, Wugi, 또는 Ogi)’는 부기스의 원래명칭이다(Mattulada 1985a: 261).

(Crawfurd 1820: 17). 계속해서, 덴마크 출신의 선교사 톰센(Thomsen, C. H.)은 1832년과 1833년 싱가포르에서 출판한 각각 두 권의 책 ‘부기스 해상법전(A Code of Bugis Maritime Laws)’과 ‘영어, 부기스어, 말레이어 단어집(A Vocabulary of the English, Bugis, and Malay Languages)’을 통해 술라파으파문자를 소개한바있다(Noorduyn 1993: 538-540). 이후, 톰센의 ‘부기스 해상법전’은 1845년 파리의 말레이학 교수였던 둘리리에(Dulaurier, Edouard)에 의해 ‘18세기 이전의 해상법(Pre-eighteenth-Maritime Laws)’이라는 서적을 통해 부기스어 문자와 함께 소개되었다(Noorduyn 1993: 541). 1854년 톰센의 책은 오스트리아 왕실출판청에서 독일어 번역본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역서를 감수했던 네덜란드성서공회(Netherlands Bible Society)의 밀리스(Millies, H. C.) 교수는 당시 남부술라웨시에서 매테스가 번역한 성경과 몇몇 서적들을 톰센이 소개한 부기스어 문자로 출판할 계획을 세웠고, 1856년 암스테르담의 출판업자 테터로테(Tetterode, N)와 함께 술라파으파문자 인쇄활자를 완성하여 마카사르에 있는 매테스에게 보냈다(Noorduyn 1993: 543). 마카사르에서 매테스가 편집한 ‘영웅 칼레부의 서사시(The Epic Story of Daeng Kalebpu)’는 술라파으파문자 인쇄활자를 이용해 출판된 최초의 책이며(Matthes 1858a), 같은 해 그의 ‘마카사르어 문법서(Makasarese Grammar)’ 또한 밀리스가 완성한 인쇄활자로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되었다(Matthes 1858b).

초기 서구인들의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에 대한 관심은 부기스어 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톨(Tol 1996: 214)이 설명한 바와 같이, 19세기를 시작으로 부기스어의 술라파으파문자가 마카사르어와 만다르어를 포함한 남부술라웨시 전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래플즈가 부기스어 문자를 ‘부기스-마카사르문자’로 함께 소개한 것과

매테스가 ‘마카사르어 문법서’를 부기스문자로 출판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부기스어의 술라파르파문자가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들 사이에서 ‘대표문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서구인들의 술라파르파문자에 대한 소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학 서적에 부수적인 정보로서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서구인들은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를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은 네덜란드성서공회(Netherlands Bible Society)를 주축으로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 성경 및 지역문헌들을 출판하기 위한 술라파르파문자의 활자개발에 지나지 않았다. 매테스 역시 그가 편집한 몇몇 지역문헌들과 책자를 술라파르파문자 활자로 출판하였지만, 그의 관심은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학문적 연구보다는 선교사역을 수월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책자들을 전통문자로 인쇄하려는 일에만 우선시되었다(Rahman 2008: 16-17). 하지만, 그의 노력에 의해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로 인쇄된 지역문헌들과 책자들이 외부에 소개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매테스의 선교사역과 관련된 전통문자의 사용을 배제하더라도, 당시 서구인이었던 그가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로 번역된 성경과 지역문헌들을 인쇄하기 위해 로마알파벳이 아닌 술라파르파문자의 사용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술라파르파문자가 부기스-마카사르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매테스 이후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은 언어학자나 문헌학자가 아닌 역사학자나 고고학자, 그리고 인류학자들로 주축을 이룬 지역학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의 해독을 통해 관련 연구의 문헌적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관심은 이차적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관심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는 소쉬르(Saussure 1983: 24)가 역설한 바와 같이 당시 언어학의 연구대상은 음성언어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⁸⁾ 또한, 문헌학 역시 연구목표를 많은 사본 중 원본을 찾아 복원하는(Pfeiffer 1976) 즉, 문헌에 기록된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고문헌의 기록에 사용된 전통문자 자체의 연구는 등한시해왔다. 이와 같은 문자연구의 불모지 속에서 20세기 중반 겔브(Gelb, Ignace Jay)는 문자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위해 ‘문자학(Grammatology)’의 창설을 주창하였지만(Gelb 1952: v, 23), 그의 노력은 당시 미국의 구조주의에 기반을 둔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의 발전으로 제3세계 소수지역어들의 연구에 가려져 정작 이 언어들을 기록한 전통문자들에 대한 연구는 몇몇 소수학자들의 변두리 학문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 연구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로는 마툴라다(Mattulada 1985b), 누르두인(Noorduyn 1993), 톨(Tol 1996), 펠라스(Pelras 2006), 그리고 조태영(Cho 2012) 등이 있다. 인류학자인 마툴라다(Mattulada 1985b)는 술라파르파문자의 창제원리에 투영된 부기스족의 세계관에 대해 고찰한바 있다. 그의 연구는 부기스 문화와 문자 간의 연관성을 최초로 기호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언어학자인 누르두인(Noorduyn 1993)은 술라파르파문자의 각 문자소의 정립과정과 시대에 따른 형태의 차이를 통시적으로 비교한바 있으며, 톨(Tol 1996)은 술라파르파문자의 계통과 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계속해서, 펠라스(Pelras)는 부기스족에 대한 인류

8) 서구에서는 소크라테스(Socrates)와 루소(Rousseau), 그리고 소쉬르(Saussure)를 거치며 로고스중심주의, 음성중심주의 그리고 형이상학주의를 토대로 언어의 음성부분만을 중시해왔다.

학적 연구서인 ‘부기스인(Manusia Bugis)’에서 부기스문자인 술라과으과문자와 마카사르문자인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의 기원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Pelras 2006: 230).⁹⁾ 상기 학자들은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를 기존의 부수적인 대상에서 독립적 연구대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 술라과으과문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조태영(Cho 2012)은 이슬람의 유입과 함께 사용된 세랑(Sérang)문자의 사용 및 발전과정과 유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술라과으과문자에만 치중되어온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연구대상을 확대시켰다.

상기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의 연구가 한 차원 발전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각 연구는 한 가지의 문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들의 형성과정과 유형적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장에서는 ‘문자단일기원설’을 중심으로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과 인도네시아 타 지역의 전통문자들 간의 계통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남부술라웨시 네 가지 전통문자들의 각각의 형성과정과 유형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Ⅲ. ‘문자단일기원설’과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형성과정과 유형

9) 펠라스(Pelras)의 논의는 수마트라(Sumatra)의 바탁(Batak)문자를 연구한 코족(Kozok 1996)의 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코족은 수마트라의 문자를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관련 소개에서 제외한다.

1. '문자단일기원설'과 인도네시아 전통문자들의 갈래

인도네시아 각 지역사회에 문식성을 심어주고 문기의식을 태동시켜준 전통문자들은 모두 외부문명의 유입과 토착화의 과정 안에서 탄생된 결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문자들을 계통적으로 구분해보면 인도문자와 아랍문자, 그리고 로마알파벳으로 나눌 수 있다 (Hardiati 2002: 1). 문자화 문화(문명) 간의 긴밀한 연관성에 기대다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전통문자들은 고래로부터 인도네시아에 관련 문명과 함께 유입되어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기원을 전후로 인도문명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자 인도의 앞선 문명을 기록하기 위해 인도의 문자가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수용되었으며, 이후 14세기를 시작으로 이슬람문명이 전파되었을 때는 새롭게 개량된 아랍문자가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었다. 계속해서, 로마알파벳은 서구인들의 도래와 함께 사용되어 현재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와 대부분의 지역어들을 표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수용되어 재탄생된 20여종의 문자들(조태영 2012c)¹⁰⁾을 시간의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들 모두는 인도문명과 아랍문명, 그리고 서구문명의 전파와 함께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인도네시아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된 약 20여종의 전통문자들을 계통에 따라 인도 문자와 아랍문자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인도문자: 팔라와(Pallawa)문자, 카위(Kawi)문자, 자와(Jawa)문자, 순다(Sunda)문자, 발리(Bali)문자, 바탁(Batak)문자, 미낭카바우(Minangkabau)문자, 커린치(Kerinci)문자, 레장(Rejang)문자, 카가웅아(Kaganga)문자, 람퐁(Lampung)문자, 술라파오파(Sulapaq Eppaq)문자,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 빌랑빌랑(Bilang-bilang)문자, 비마(Bima)문자, 엔데(Ende)문자. 2)아랍문자: 자위(Jawi)문자, 페곤(Pégon)문자, 세랑(Sérang)문자, 부리월리오(Buri Wolio)문자. 오늘날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와 대부분의 지역어들을 기록하는 로마알파벳은 전통문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인도 문자에 대한 내용은 조태영(2012b) 참조. 인도네시아 아랍문자에 대한 내용은 Cho(2012) 참조.

인도네시아 전통문자들의 출현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인도문명 및 아랍문명과 함께 차용된 인도문자와 아랍문자는 인도네시아 각 지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수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된 것이다. ‘차용’과 ‘수용’은 인도네시아 전통문자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문자발전의 흐름을 주도해온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즉,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문자¹¹⁾는 하나의 동일한 어미문자로부터 문명의 전파에 따라 인접사회에 차용된 후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맞게 수용되어 재탄생된 결과인 것이다(Coulmas 1996: 346-347). 슈미트(Schmitt 1980: 325)는 언어기술(문자)이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노력과 자극 없이 특정 언어사회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해 창조될 수 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문자단일기원설(monogenesis of writing)’을 주장했다. 슈미트의 주장에서 ‘노력’과 ‘자극’은 문명의 전파 안에서 발생하는 문자의 ‘차용’과 ‘수용’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말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려던 원래의 발상과 거기에 사용된 도해기호로부터 출발된 문자는 차용과 수정 그리고 변형되어 다른 민족의 언어와 사회적 수요에 적응되어진 과거의 원형이자 또는 그 체계의 후손이라 할 수 있다(Fischer 2001: 8).

문자단일기원설에 기대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된 모든 문자의 세 가지 계통인 인도문자, 아랍문자, 그리고 로마알파벳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각각 인도의 브라흐미(Brahmi Script)문자와 아람(Aramaic Alphabet)문자, 그리고 페니키아(Phoenician Alphabet)문자와 만나게 되며,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췌기(Cuneiform)문자까지 거

11) ISO 1592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문자이름표기를 위한 부호(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scripts)’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사용된 모든 문자의 종류는 약 188종으로 추산되며, 옹(Ong 1982: 7)은 약 106개의 언어만이 문자를 가져보았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문자의 종류는 약 180여종 안팎으로 추산할 수 있다. ISO 15924의 문자종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unicode.org/iso15924/codechanges.html>

슬러 올라가게 된다. 즉,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전통 문자들은 세 가지 계통에서 출발한 문자들의 후손이며, 각각의 발전 과정은 세계문자발전사의 역동적인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절에서는 문자단일기원설을 토대로 남부술라웨시의 전통문자들의 기원과 각각의 유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기원과 형성과정 그리고 유형적 특징

문자단일기원설을 중심으로 문자의 계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자의 유형적 특징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문자의 차용과 수용의 과정에서 계통과 유형이 동시에 발전되기 때문이다(권중성 1999: 73). 피셔(Fischer 2001: 64)는 문자의 발전과정에서 어미문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문자에게 영향을 주는 차용의 요소를 ‘1)문자의 개념, 2)문자의 개념과 표기방향, 3)문자체계, 4)문자체계와 문자, 5)문자체계의 일부분, 그리고 6)문자의 일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새롭게 발전된 문자는 그것의 어미문자가 지니고 있는 상기 여섯 가지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문자체계에 해당되는 언어표기방법(음절표기나 음소표기 등)이나 문자소의 순서, 표기방향, 그리고 문자의 외형적 특징과 같은 유형적 유사성은 계통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전통문자들 사이에서 유형적 특징의 유사성이 문자들 간의 계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자의 발전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하나의 특정 문자가 어떤 어미문자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사회에 전파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통문자들이 발전되어온 시간의 간격이 너무나 크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들 중 발전경로와 기원을 알 수

있는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와 세랑(Sérang)문자, 그리고 빌랑빌랑(Bilang-bilang)문자 외에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의 발전경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장양장양문자는 술라파으파문자를 변형시켜 만든 문자이고,¹²⁾ 세랑문자는 아랍문자와 동일하며, 빌랑빌랑문자는 인위적으로 창제된 문자¹³⁾이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문자의 발전경로와 기원은 부분적으로나마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술라파으파문자는 유형적으로 아부기다(abugida)¹⁴⁾에 속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그 계통이 인도문자인 팔라와(Pallawa)문자(Kridalaksana 1993: xxi)¹⁵⁾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문자소의 외형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인도계통 문자들과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술라파으파문자의 정확한 발전경로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남부술라웨시에 인도계통의 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가 어떤 어미문자를 시작으로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학자들은 서쪽에서 유입된 인도문명이 인도네시아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바닷사람으로 명성을 날리던 부기스-마카사르인들의 해상활동을 통하여 수마트라와 자와 등지에서 앞서 발전되었던 인도계통의 문자가 남부술라웨시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Fachruddin 1999: 31).

수마트라와 자와에서 앞서 사용된 인도계통의 문자와 남부술라웨

12) 장양장양문자의 창제경위는 본 절의 2항에서 살펴볼 것이다.

13) 빌랑빌랑문자의 창제경위는 본 절의 4항에서 살펴볼 것이다.

14) 아부기다(abugida)는 인도문자에 계통을 두는 동남아 일대의 전통문자를 말한다. 유형적 특징으로는 모든 문자소에 모음 /a/가 붙어있다.

15) 팔라와(Pallawa)문자는 4-9세기 인도 남부에서 번성한 팔라와 왕조가 사용한 문자이다(Coulmas 1996: 387). 동부칼리만탄의 쿠타이(Kutai)에서 서기 400년에 제작된 유파(Yupa)비문은 팔라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문자기록이다(Hunter 1996: 3). 남부수마트라의 스리위자야(Sriwijaya)왕국이 7세기 말에 기록한 네 개의 비문(커두칸부킷Kedukan Bukit, 탈랑투워Talang Tuwo, 코타카푸르Kota Kapur, 카랑브라히Karang Brahi) 역시 모두 팔라와문자로 기록되었다(Hussein 1992: 14).

시 전통문자 간의 영향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수마트라와 자와에서 사용된 문자들 중 남부술라웨시의 문자와 유형적으로 가장 유사한 문자를 찾아 서로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피셔가 제시한 차용의 요소에 기댄다면, 남부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문자에는 남부수마트라에서 사용된 전통문자들의 유형적 특징이 많이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크라우퍼드(Crawford 1856: 88)는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 순서가 자와(Jawa)와 발리(Bali)문자의 “<ha>, <na>, <ca>, <ra>...”와는 달리 남부수마트라의 커린치(Kerinci)문자와 레장(Rejang)문자의 문자소 순서인 “<ka>, <ga>, <nga>, <pa>...”와 같다는 점을 통해 술라파으파문자와 남부수마트라의 전통문자들 간의 연관성을 주목했다.¹⁶⁾ 또한, 인도네시아의 학자 파크루딘(Fachruddin 1999: 39)은 사선과 마름모 형태로 이루어진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가 둥글고 곡선이 많은 자와 문자보다는 대부분 직선과 사선으로 이루어진 남부수마트라 전통문자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술라파으파문자가 남부수마트라의 전통문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펠라스(Pelras)는 남부수마트라로부터 인도계통의 문자체계가 남부술라웨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서기 900년 마닐라에서 팔라와문자로 기록된 말레이어 구리조각(Laguna Copper Plate Inscription)을 주목했다. 학자들은 이 구리조각이 10세기경 스리위자야 왕국의 영향력이 필리핀의 루존(Luzon) 섬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펠라스(Pelras 2006: 231)는 팔라와문자와 말레이어를 사용했던 스리위자야

16) 자와문자의 문자소 순서는 <ha>, <na>, <ca>, <ra>, <ka>, <da>, <ta>, <sa>, <wa>, <la>, <pa>, <dha>, <ja>, <ya>, <nya>, <ma>, <ga>, <ba>, <tha>, <nga>이며, 술라파으파문자와 장양장양문자의 문자소 순서는 <ka>, <ga>, <nga>, <pa>, <ba>, <ma>, <ta>, <da>, <na>, <ca>, <ja>, <nya>, <ya>, <ra>, <la>, <wa>, <sa>, <a>, <ha>이다.

왕국의 영향력이 이미 10세기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필리핀에 까지 미쳤다는 사실로 미루어, 5세기 초에 팔라와문자를 사용한 동부칼리만탄의 쿠타이(Kutai)가 남부술라웨시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인도문자의 개념이 적어도 7세기경에는 남부술라웨시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부기스 왕국의 실록문헌을 연구한 콜드웰(Caldwell 1988: 10-12, 169-172)은 남부술라웨시의 필사전통이 1,4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그의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그 이전 시기의 문자사용에 대한 펠라스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펠라스는 남부술라웨시의 필사전통이 1,4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전시기의 문자사용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 이전에는 문자가 무역이나 주술과 같은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설명했다(Pelras 2006: 231). 다시 말하자면, 5세기에 동부칼리만탄의 쿠타이에서 발전된 팔라와문자의 개념이 약 7세기경 남부술라웨시에 전달되어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다가 14세기 이후 왕국을 통한 본격적인 문자사용이 일어났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피셔의 문자발전의 차용요소와 펠라스의 의견에 기댄다면, 인도네시아에서 발전된 인도계통의 문자들은 유형과 계통에 따라 두 갈래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팔라와문자에서 카위문자를 거쳐 수마트라(북부의 바탐문자와 남부의 커린치문자, 레장문자)와 남부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문자로 이어지는 갈래이며,¹⁷⁾ 두 번째는 팔라와문자에서 카위문자, 자와문자, 순다문자, 그리고 발리문자로 이어지는 갈래이다.¹⁸⁾ 즉, 남부술라웨시의 술라파으파문자

17) 팔라와문자는 카위문자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Coulmas 1996: 263), 이후 카위문자는 팔라와문자와 함께 수마트라 북부의 바탐문자와 남부의 커린치문자 및 레장문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Durie 1996: 248).

18) 팔라와문자에서 발전된 카위문자(Coulmas 1996: 263)는 자와문자와 발리문자로 이어진다.

의 기원은 수마트라의 문자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양장양문자는 술라파으파문자와 동일한 계통에 속하고 유형적으로도 유사하지만 문자소의 형태는 사선과 직각의 특징을 보이는 술라파으파문자와는 전혀 다르게 발전되었다. 다음에서는 남부술라웨시 네 가지 전통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와 장양장양문자, 이슬람문명의 유입과 함께 사용된 세랑문자, 그리고 빌랑빌랑문자의 문자이름의 기원과 문자소의 제자원리, 그리고 문자사용의 발전과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유형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문자: 사각형(四角形)문자






























부기스어로 ‘술라파으파(Sulapaq Eppaq)’는 ‘사각형(마름모)’이라는 뜻이다. <그림 2>의 술라파으파문자를 살펴보면 ‘사각형(마름모)’을 중심으로 사선(vertical stroke)과 V형(V-shape), 역V형(inverted V-shape), 그리고 점(dot)의 가감이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를 이루는 기본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Noorduynd 1993: 565). 마툴라다(Mattulada 1985b: 8-10)의 설명에 따르면, 술라파으파문자의 원형인 ‘사각형’은 부기스인의 세계관에서 대우주(macrocsm)와 소우주(microcosm)를 상징한다. 특히,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 중 사각형(마름모) 모양인 <sa>는 말(언어)이 나오는 입의 모양으로서 인간의 몸인 소우주이자 동시에 대우주를 상징한다.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 제자원리에는 부기스인의 대우주와 소우주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계통의 문자개념은 팔라와문자와 수마트라의 전통문자들로부터 남부술라웨시에 전해진 후, 문자체계는 그대로 유지된 채, 문자소의 외형은 부기스인들의 세계관과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재탄생된 것이다.

부기스어를 표기하는 술라파으파문자의 문자소 개수는 <그림 2>에서와 같이 모두 23개로 이루어져있다. 라흐만(Rahman 2008:

15-16)은 23개의 문자소 중 선비강음(prenasalized sound)을 표기하는 문자소인 <ngka>, <mpa>, <nra>, 그리고 <nca>는 원래의 문자소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 메테스가 남부술라웨시를 방문하기 전의 고문헌들에는 상기 네 개의 문자소가 발견되지 않지만, 이후 메테스가 필사한 사본들에는 네 개의 문자소가 발견되는 점을 주목했다(Rahman 2008: 16). 이러한 그의 주장은 또 하나의 다른 문자인 빌랑빌랑문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콜리 푸지에(Colliq Pujié)가 빌랑빌랑문자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 네 개의 선비강음을 표기하는 문자소는 없었지만, 이후 메테스는 네 개의 문자소를 직접 만들어 더했다(Rahman 2008: 16-17). 이러한 이유는 부기스어에 존재하는 상기 네 개의 선비강음(Noorduyn 1993: 545)을 언어학자였던 메테스가 발견한 후 관련 문자소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Rahman 2008: 16). 한편, 마카사르어를 표기하는 술라파오파문자에는 상기 네 개의 문자소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부기스어 단어에는 상기 선비강음에 포함되는 무성음(voiceless sound)이 나타나지만, 마카사르어 단어에서는 유성음(voiced sound)으로 바뀌기 때문이다(Noorduyn 1993: 545).¹⁹⁾ 계속해서, 마지막 문자소 <ha>는 이슬람 유입 이후의 아랍차용어휘의 표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랍어 표기를 위해 새롭게 더해진 문자소임을 알 수 있다(Noorduyn 1993: 559).

19) 부기스어에서 선비강음(Prenasalized sound)의 무성음(voiceless sound)이 마카사르어에서 유성음(voiced sound)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은 ‘langkaraq(부)-langgaraq(마): small prayer house’, ‘jampu(부)-jambu(마): rose-apple’, ‘janci(부)-janji(마): promise’ 등이 있다(Noorduyn 1993: 545).

<그림 2> 술라파으파문자: 사각형문자

									
1. ka	2. ga	3. nga	4. ngka	5. pa	6. ba	7. ma	8. mpa	9. ta	10. da
									
11. na	12. nra	13. ca	14. ja	15. nya	16. nca	17. ya	18. ra	19. la	20. wa
			Diacritic for Vowel						
21. sa	22. a	23. ha		ka	ki	ku	ke	ko	ke(schwa)

출처: (Cho 2010: 16)

술라파으파문자는 아부기다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2>에서와 같이 모든 문자소에 모음 /a/가 붙어있다. /a/ 이외의 다섯 개의 모음인 /i/, /u/, /é/, /o/, /e/(schwa)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모음표시인 구별부호(diacritic)를 사용한다. 구별부호의 사용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점(dot)과 작은 V형태(V-shape)를 돌려 표기한다. 술라파으파문자의 단점은 종성음을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혹 종성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 같은 두 단어 간의 의미파악에 혼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기스어 단어 ‘otak(뇌, 머리)’에서 두 번째 음절의 종성음 /k/는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O>와 <Ta>로 표기하고 ‘오탁’으로 읽는다. 이것은 단어 ‘ota(담배 잎)’의 표기와 같기 때문에 두 단어 간의 의미파악에 혼란을 준다. 따라서 술라파으파문자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문맥에 따른 단어의 의미파악이 필수이다(조태영 2012a: 137).

술라파으파문자의 서자방향은 좌횡서(左橫書)이다. 17세기 유럽인들의 유입에 따라 종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론타르(lontar)’ 야자나무 잎을 가공하여 길게 엮은 론타르지가 기록용지로 사용되었다. 론타르지의 규격은 보통 2센티미터의 너비에 길이는 60센티미터이다. 이러한 긴 용지는 둥글게 말아서 양쪽 끝을 나무열레에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문헌을 읽을 때는 카세트모양의 론타르지를 돌려가며 읽었다(Tol 1996: 217). 이와 같이, 론타르지를 사용했던 전통 때문에 남부술라웨시에서 ‘론타르(lontar)’는 ‘론타라(lontaraq)’로 변형되어 ‘고문헌’ 또는 ‘술라파으파문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다. 론타르지에 기록된 고문헌은 남부술라웨시의 고온다습한 기온 때문에 대부분이 소멸되었다. 오늘날 보존되어 있는 고문헌은 종이에 기록된 것들이며, 17세기경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고문헌으로 알려져 있다(Tol 1996: 217).

술라파으파문자는 남부술라웨시 인근의 누사텡가라(Nusa Tenggara)의 플로레스(Flores)와 엔데(Ende)에서 쉼바와(Sumbawa)어와 비마(Bima)어 그리고 엔데(Ende)어를 기록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Banda 2005: 2; Coulmas 1996: 314).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부기스-마카사르사회는 타지역으로까지 문자사용의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문기(文氣)의식이 발달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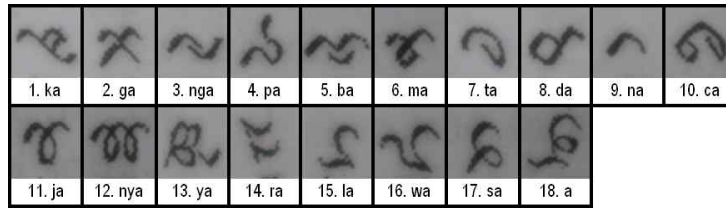
(2)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 계형(鷄形)문자

14세기에 건립된 마카사르 고와(Gowa)왕국의 실록에는 문자창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이 담겨있다. 고와왕국의 9대 왕인 ‘투마파리시 칼론나(Tumapa'risi' Kallonna, 1511-1548)’의 실록에는 “우리의 임금, 그리고 그의 항무관(港務官)이자 수상인 다엥 파마테(Daéng Pammaté)는 최초로 전시체제 및 국가정치기반의 법률 제정과 론타라(lontaraq)를 창제하였다(Rahman et al. 1996: 59).”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 기록을 주목해왔다. 상기 기록에서 단어 ‘론타라(lontaraq)’는 부기스-마카사르사회에서 ‘문자’ 이외에 고문헌 등과 같이 문자로 기록된 모든 기록물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문자창제와 관련된 다른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론타라(lontaraq)’가 마카사르의 장양장양문자가 아닌 왕국의 ‘법률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한다(조태영 2012: 135).

하지만 단어 ‘론타라’를 문자창제로 이해한다하더라도, 펠라스(Pelras 2006: 230)는 위의 기록이 문자의 직접적인 창제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펠라스(Pelras 2006: 231)가 주장한바와 같이 7세기경에 이미 부기스사회에 문자의 개념이 전달되었고, 부기스-마카사르인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동화를 상기한다면, 부기스사회의 문자는 마카사르사회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또한 술라파오과문자와 장양장양문자는 문자소의 외형적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표기체계와 문자소의 개수, 그리고 문자소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다엥 파마테(Daéng Pammaté)는 문자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술라파오과문자 체계에 문자소의 형태만 다르게 적용하여 장양장양문자를 만들어 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16세기 이후부터 고와 왕국의 실록은 이전에 비해 기록의 양이 많아지고 내용 또한 자세히 기록되어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엥 파마테는 문자사용에 있어서 많은 변혁과 발전을 꾀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Pelras 2006: 230).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마카사르인들은 장양장양문자가 다엥 파마테(Daéng Pammaté)가 직접 창제한 문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경 동부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던 고와(Gowa)왕국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카사르인들의 민족성중시주의(ethnicism)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장양장양문자: 계형문자



출처: (Syarifuddin et al. 2003: 19)

‘장양장양(Jangang-jangang 또는 Manuq-manuq)’은 마카사르어로 ‘닭’을 의미한다. 투마파리시 칼론나(Tumapa’risi’ Kallonna) 왕이 문자창제를 명령했을 때, 수상인 다엥 파마테(Daéng Pammaté)가 닭의 외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여 문자모양을 만든 이야기가 마카사르사회에 전해 내려온다(Syarifuddin et al. 2003: 16). 마카사르사회에서 수탉이 오래전부터 용맹과 근면을 상징하는 특별한 동물이었다는 것을 보면, 닭의 외형을 참고하여 문자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⁰⁾

<그림 3>의 장양장양문자를 살펴보면 각 문자소의 외형은 술라과 오프문자와는 달리 복잡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필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장양장양문자로 기록된 고문헌은 상당히 적은 수만을 찾아볼 수 있는데(Tol 1996 214), 이러한 이유는 복잡한 문자소의 외형이 필기에 비경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장양장양문자로 기록된 유명한 문헌은 1667년 고와(Gowa)왕국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와 맺은 ‘붕야협정(Bungaya Treaty)’이다(Tol 1996:

20) 부기스-마카사르사회에서 ‘닭’은 부지런함과 용맹의 상징이었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 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를 상대로 용감하게 싸웠던 고와(Gowa)왕국의 16대 하사누딘(Hasanuddin) 왕은 ‘동방의 수탉(Ayam jantan dari Timur)’으로 불리기도 했다.
http://id.wikipedia.org/wiki/Sultan_Hasanuddin

214). 국가 간의 협정문에 장양장양문자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비추어보아 장양장양문자는 고와왕국의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사용된 문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필기에 비경제적인 복잡한 문자소의 외형과 지배계층 중심의 사용자 층은 문자사용의 보편화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양장양문자는 19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멸하였으며, 술라과으파문자에게 마카사르어 표기를 내주고 말았다 (Tol 1996: 214).²¹⁾

(3) 세랑(Sérang)문자

17세기 초 이슬람문명은 고와(Gowa)왕국을 통해 남부술라웨시 전역에 확산되었다. 이슬람 경전과 종교서적들은 지역어로 번역되었고 여기에 아랍문자가 사용되었다. 아랍문자는 부기스-마카사르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새로운 문자소가 더해져 ‘세랑(Sérang)문자’가 탄생되었다. 세랑문자의 사용에는 14세기 초 아랍문자를 말레이어에 변용시켜 자위(Jawi)문자를 만들어낸 말레이인들의 영향이 컸다(Cho 2010: 18).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 이슬람을 역동적으로 전파했던 말레이인들에게 아랍문자는 이슬람전파에 있어서 필수 요소였다(Moain 1996: 17). 각 지역어로 이슬람 경전과 종교서적들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랍문자의 사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Rahman et al. 1996: 35). 이와 같이, 아랍 문자 사용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말레이인들은 16세기 중반부터 대를 이어 고와(Gowa)왕국의 서기관직을 맡게 되었다.²²⁾ 서기관직을

21) 동남부술라웨시의 부톤(Buton)섬에 위치한 월리오(Wolio)사회에는 장양장양(Jangang-jangang)문자의 사용 흔적이 드문드문 발견되고 있다(Anceaux 1988: 2).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인근 지역사회로 장양장양문자의 전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6-17세기 마카사르의 고와(Gowa)왕국은 동부인도네시아 전역을 장악할 만큼 막강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왕국의 세력에 힘입어 장양장양문자의 사용이 월리오사회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이후, 월리오사회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아랍문자를 월리오어에 맞게 개량한 부리 월리오(Buri Wolio)문자를 사용하였다(Zuhdi 2010: 100).

말게 된 말레이인들은 남부술라웨시에 세랑문자의 사용과 보급에 힘을 썼다(Cho 2012: 98). 19세기 중반 남부술라웨시에 거주한 네덜란드 선교사 매테스는 남부술라웨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랍문자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고 기록했는데(Cummings 2014: 202), 그의 기록을 통해 당시 남부술라웨시에서의 이슬람의 영향력과 세랑문자의 보급률을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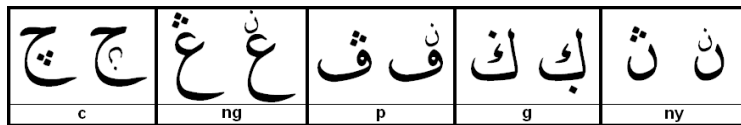
세랑문자의 이름 ‘세랑(Sérang)’의 기원에 대해 마툴라다(Mattulada)는 말루쿠(Maluku)의 세람(Seram)섬 사람들이 남부술라웨시에 이슬람과 아랍문자를 소개했기 때문에 ‘세람(Seram)’이 변형되어 ‘세랑(Sérang)’문자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Mattulada 1985a: 262). 하지만 남부술라웨시에 이슬람이 유입된 경로에는 그 어디에도 세람(Seram)섬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이슬람사학자인 세왕(Sewang)은 비록 말레이인들이 남부술라웨시에 이슬람과 아랍문자를 소개하였지만, 세람이 남부술라웨시보다 먼저 이슬람을 수용했고 또한 그 이전부터 세람과 남부술라웨시의 관계가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세람이라는 이름이 세랑문자의 이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Sewang 2005: 42). 하지만, 마툴라다와 세왕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궁에 있다. 한편, ‘세랑(Sérang)’이라는 단어는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로 ‘기울어진’, 또는 ‘빗나간’이라는 의미이다. 함셈어(Hamito-Semitic)의 아랍어를 표기하는 아랍문자는 오스트로네시아어(Austronesian)인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

22) 16세기 마카사르에는 말레이 무슬림들을 위한 마을과 이슬람사원이 있었다(Sewang 2005: 1). 쿠란낭독과 문학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말레이인들은 고와(Gowa)왕국의 10대 왕 ‘라키웅 투니팔랑가 올라웡(Lakiyung Tunipallangga Ulaweng, 1546-1565)’때부터 대를 이어 고와왕국의 서기관으로 등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16대 하사누딘(Hasanuddin)왕 때의 서기관이었던 아민(Enci’ Amin)은 고와왕국과 네덜란드 간의 전쟁을 소재로 ‘마카사르 전쟁 시(Syair Perang Makassar)’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Nomay 2009: 47-50).

를 기록하기에는 유형적으로 알맞지 않다. 따라서 ‘세랑(Sérang)’은 아랍문자가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를 표기하기에 유형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으로 추측할 수 있다 (Cho 2012: 106).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자와인들 역시 아랍문자가 자와어 표기에 적당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와어를 기록하는 아랍문자를 페곤(Pégon)문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페고(pégo)’는 자와어로 ‘빛나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Cho 2012: 106).²³⁾

세랑문자는 28개의 아랍 문자소에 부기스어와 마카사르어의 음을 표기하는 5개의 변종문자소가 추가되어 완성되었다. 변종문자소는 <그림 4>에서와 같이 <c>, <ng>, <p>, <ny>, 그리고 <g>이다. 이들 문자소는 각각 아랍 문자소의 jīm, ‘ayn, fā’, nūn에 점(dot) 3개와 kāf에 점 1개가 추가되어 만들어졌다. 간혹, 몇몇 문헌에서 변종문자소의 점 3개는 마치 nūn과 같이 표기되는데, 이것은 3개의 점을 빠르게 펼기하면 마주하고 있는 밑의 점 2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Cho 2012: 121). 세랑문자는 아랍문자이기 때문에 서자방향은 우횡서(右橫書)이다.

<그림 4> 세랑문자의 변종문자소



출처: (Cho 2012: 120)























23) ‘페고(pégo)’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불구’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아랍문자와 체계가 다른 자와어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서로 간에 맞지 않고 엇갈린다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Pegon_alphabet

남부술라웨시의 부기스-마카사르인들은 아체(Aceh), 마두라(Madura) 그리고 말레이(Melayu)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을 강하게 수용한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Pelras 2006: 4). 하지만 이들의 강한 이슬람 정체성에 비하여 세랑문자는 술라과오파문자에 비해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다. 이러한 이유는 아랍문자의 특징과 같이 세랑문자가 이슬람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Cho 2012: 134-135). 오늘날에도 세랑문자는 남부술라웨시의 프산트렌(pesantrén)과 같은 이슬람학교에서 이슬람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4) 빌랑빌랑(Bilang-bilang)문자: 숫자형(數字形)문자

19세기 부기스 왕족이었던 콜리 푸지에(Colliq Pujié)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측이 부기스왕국의 비밀문서들을 읽지 못하게 할 정치적인 목적으로 술라과오파문자의 체계에 새로운 형태의 문자소를 만들어 더했는데, 이 문자가 바로 빌랑빌랑(Bilang-bilang)문자이다(Rahman 2008: 124). 이 문자의 이름으로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의 ‘빌랑빌랑(Bilang-bila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아랍문자의 숫자를 표기하는 문자소로 빌랑빌랑문자의 문자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Syarifuddin et al. 2003: 19-20).

<그림 5> 빌랑빌랑문자: 숫자형문자

									
1. ka	2. ga	3. nga	4. ngka	5. pa	6. ba	7. ma	8. mpa	9. ta	10. da
									
11. na	12. nra	13. ca	14. ja	15. nya	16. nca	17. ya	18. ra	19. la	20. wa
									
21. sa	22. a								

출처: (Syarifuddin et al. 2003: 20)

술라파으파문자와 마찬가지로 빌라빌랑문자는 부기스어를 기록하기 때문에 선비강음(prenasalized sound)을 표기하는 문자소 <ngka>, <mpa>, <nra>, 그리고 <nca>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네 개의 문자소는 술라파으파문자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메테스가 부기스어 체계에 맞게 개인적으로 더한 것이다 (Rahman 2008: 16-17). 빌랑빌랑문자는 인도계통의 술라파으파문자의 체계에 문자소 형태만 아랍문자의 숫자를 표기하는 문자소를 분떠 만들었기 때문에(Rahman 2008: 125) 유형적으로는 술라파으파문자와 동일하다. 오늘날 빌랑빌랑문자로 기록되어 남겨진 고문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러한 이유는 빌랑빌랑문자가 부기스왕국의 비밀문서를 기록하는 문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 장양장양문자, 세랑문자 그리고 빌랑빌랑문자를 계통과 유형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의 계통과 유형에 따른 분류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	계통	유형
술라파으파(<i>Sulapaq Eppaq</i>)문자: 사각형문자	인도문자	음절문자(아부기다)
장양장양(<i>Jangang-jangang</i>)문자: 계형문자	인도문자	음절문자(아부기다)
세랑(<i>Sérang</i>)문자	아랍문자	자음치중음소문자
빌랑빌랑(<i>Bilang-bilang</i>)문자: 숫자형문자	아랍문자	음절문자(아부기다)

상기 네 가지 전통문자의 발전과정을 정리해보면, 술라파으파문자를 시작으로 마카사르의 장양장양문자가 만들어졌고, 아랍문자인 세랑문자 출현 이후, 술라파으파문자의 체계에 아랍문자의 문자소 외형이 더해져 새로운 빌랑빌랑문자가 탄생되었다. 즉,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들의 발전과정은 이곳의 문자발전사가 하나의 전통문자에

서 단절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남부술라웨시의 문자발전사에는 문자단일기원설의 한 단면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전통문자들의 사용영역과 각 문자들의 위치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들이 지난 날 각각 어떠한 영역에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자들로 기록된 고문헌의 양과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남부술라웨시에서 네 가지 전통문자로 기록된 고문헌이 정확히 몇 권인지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인도네시아국립문서국(ANRI: Arsip Nasional Republik Indonesia)’에 등록된 남부술라웨시 고문헌의 자료를 통해 각 문자들의 사용영역과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역사학자인 파에니(PaEni)는 2003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국립문서국(ANRI)에 등록된 남부술라웨시 고문헌의 개수를 5,845권으로 밝히고 있다 (PaEni 2003: 949-979).²⁴⁾ 현재, 인도네시아관광부(Kementerian Pariwisata Indonesia)와 인도네시아국립문서국(ANRI), 그리고 국립박물관(Museum Nasional)등이 남부술라웨시 지역사회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헌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고문헌의 개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 파에니(PaEni 2003)는 ‘남부술라웨시 누산타라 고문헌 목록(Katalog Induk Naskah-Naskah Nusantara Sulawesi Selatan)’의 서문에서 남부술라웨시 고문헌을 4,049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그는 다시 같은 책 949-979페이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립문서국(ANRI)에 등록된 남부술라웨시 고문헌 5,845권을 내용별로 분류해 놓았다. 본고는 고문헌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숫자를 산출한 5,845권을 남부술라웨시 고문헌의 개수로 판단한다.

파에니(PaEni 2003: 949-979)는 5,845권의 고문헌을 기록된 분야와 내용 그리고 주로 사용된 문자에 따라 <표 2>와 같이 분류했다.

<표 2> 남부솔라웨시 고문헌의 기록 분야와 내용, 사용된 문자에 따른 분류

분야	전통	문학	이슬람
내용	닭(鷄) 관련 (12권)		
	일기 (142권)		
	전통법률 (129권)	민속이야기 (70권)	코란 (132권)
	점술 (299권)	<i>La Galigo</i> (212권)	부적 (210권)
	주문 (172권)	<i>Hang Sri</i> 이야기 (15권)	대화문 (110권)
	민간요법 (88권)	설화 (196권)	기도문 (611권)
	명언 (319권)	요셉이야기 (85권)	이슬람율법 (418권)
	전통역사 (251권)	선지자의 역사 (221권)	매매(賣買)법 (13권)
	가족계보 (197권)	무함마드의 승천 (75권)	설교 (65권)
	일반문서 (35권)	<i>Makellu</i> 이야기 (86권)	윤리 (64권)
	성교육 (43권)	마카사르속담 (54권)	믿음 (182권)
	꿈 해몽 (19권)	무함마드의 생애 (117권)	코란암송 (46권)
	선박 (35권)	일반서적 (10권)	신비 (247권)
	조약 (98권)	일반교육 (67권)	진리 (356권)
	농업 (37권)	중국이야기 (26권)	현세와 내세 (47권)
	가옥 (25권)		기도와 찬송 (186권)
	의복 (2권)		
무기 (21권)			
문헌 수	1,924권 (32.91%)	1,234권 (21.12%)	2,687권 (45.97%)
	3,158권 (54.03%)		
사용된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파르파문자 + (장양장양문자, 빌랑빌랑문자 병행) 3,158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라파르파문자 1,907권 (32.63%) ▪ 세랑문자 780권 (13.34%)
총계	총 5,845권		

출처: (PaEni 2003: 949-979)

고문헌의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이슬람분야(2,687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통분야(1,924권), 그리고 문학분야(1,234권)가 그 뒤를 따른다. 특히, 상기 세 분야 중 이슬람분야는 총 고문헌의

약 절반(45.97%)을 차지할 정도로 문헌의 수가 가장 많다. 이슬람분야의 고문헌이 많다는 것은 남부술라웨시에서 이슬람이 역동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이슬람분야의 고문헌이 모두 세랑문자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분야를 포함하여 5,845권의 고문헌 대부분은 하나의 문헌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가 병행 사용되었기 때문이다(Tol 1996: 213). 이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문자가 하나의 고문헌에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전통문자들이 시기적으로 서로 겹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Tol 1996: 213). 특히, 네 가지 전통문자들 중에서 술라파으파문자와 세랑문자가 다른 문자들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장양장양문자는 19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멸하였으며(Tol 1996: 214), 빌랑빌랑문자는 비밀문자의 목적으로 창제된 문자(Rahman 2008: 124)로서 그 사용시기와 수요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주로 사용된 문자의 종류에 따라 고문헌의 분야를 나누어 보면 1)전통-문학분야와 2)이슬람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통-문학분야는 술라파으파문자를 중심으로 종종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가 병행 사용되었으며, 이슬람분야는 술라파으파문자와 세랑문자가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전통-문학분야에서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는 술라파으파문자를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병행 사용되고 있으며, 이슬람분야에서는 세랑문자가 술라파으파문자와는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5,845권의 고문헌 기록에 사용된 문자의 종류는 크게 술라파으파문자와 세랑문자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상기 <표 2>에서 전체 고문헌 중 세랑문자로 기록된 780권 (13.34%)의 문헌을 제외하면 나머지 86%이상은 술라파으파문자로만 또는 술라파으파문자를 중심으로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

가 부수적으로 병행 사용된 문헌이다. 이러한 사실은 술라파으파문자가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슬람분야에서 조차 세랑문자로 기록된 고문헌이 전체 이슬람분야의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780권 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모두 술라파으파문자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술라파으파문자는 남부술라웨시에서 기록 분야와 영역에 상관없이 가장 널리 사용된 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부술라웨시에서 술라파으파문자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술라파으파문자의 전통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자의 전통성은 종종 문자사용의 경제성이나 편리성을 증가하기도 한다 (Robinson 1995: 46). 술라파으파문자가 남부술라웨시에서 처음 형성되어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 형성에 어미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술라파으파문자가 다른 문자에 비해 전통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주로 사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술라파으파문자의 형태는 곡선형태가 많이 들어간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 그리고 세랑문자와는 달리 필기에 보다 간소하기 때문에 문자사용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이와 같이, 전통성과 함께 문자사용의 경제성과 편리성까지 두루 갖춘 술라파으파문자의 사용 영역은 장양장양문자와 빌랑빌랑문자를 뛰어넘어 세랑문자의 이슬람영역까지 증가하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상기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부술라웨시의 전통, 문학, 그리고 이슬람영역 대부분이 술라파으파문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사실은 술라파으파문자의 확고한 사용위치를 말해주며, 이러한 위치는 술라파으파문자의 전통성에 기인하고 있다.

V. 나오는 말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인 술라파으파문자와 장앙장앙문자, 세랑문자, 그리고 빌랑빌랑문자는 문자단일기원설에 따라 인도문자와 아랍문자가 인도네시아에 유입되었을 때, 남부술라웨시의 부기스-마카사르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걸맞게 재탄생된 결과이다. 본고는 기존의 술라파으파문자에 치중된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네 가지 전통문자들의 기원과 형성과정, 유형적 특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사용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의 시초는 동부칼리만탄과 남부수마트라에서 발전된 인도계통문자인 팔라와문자의 개념이 약 7세기경 전달된 후, 여기에 부기스사회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사각형(Sulapaq Eppaq)’ 형태의 문자소가 더해져 시작되었다. 이후, 술라파으파문자는 마카사르사회로 건너와 닭(鷄)의 외형을 본떠 만든 문자소가 접목된 장앙장앙문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계속해서, 17세기에는 이슬람과 함께 유입된 아랍문자가 부기스-마카사르사회의 이슬람영역을 기록하고 담당할 세랑문자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19세기에는 특정분야에 사용할 목적으로 술라파으파문자의 유형적 구조와 세랑문자의 문자소를 인위적으로 접목시킨 빌랑빌랑문자가 출현했다. 특히, 네 가지 전통문자 중 술라파으파문자가 지닌 전통성은 남부술라웨시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술라파으파문자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네 가지 전통문자의 사용과 발전의 역동성은 각 시대별로 부기스-마카사르사회를 넘나들며 남부술라웨시의 문식성과 문기의식을 태동시킨 근원인 것이다.

남부술라웨시에 네 가지의 전통문자가 발전되었다는 것은 일찍이 이들의 기록욕구를 자극한 구술전통과 이를 문자로 옮긴 기록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과거 남부술라웨시 문기의

근원이었던 전통문자는 오늘날 역사의 일부분으로 전락 된지 오래다. 특히, 신세대들은 전통문자를 읽거나 쓰지도 못하며, 전통문자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다. 마카사르의 초·중학교는 전통문자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나날이 식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남부술라웨시 지방정부는 전통문자 보존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신세대들이 술라파으파문자를 쉽게 배우도록 철자법을 간소화했으며,²⁵⁾ 전통문자에 대한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하사누딘(Hasanuddin)국립대학교는 지방정부와 함께 2008년 ‘지방어교사교육학과(PSGBD: Pendidikan Sarjana Guru Bahasa Daerah)’를 개설했다.²⁶⁾ 졸업생들은 각자 출신지역의 초·중등학교 지방어교사로서 지역어와 전통문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도 과거 전통문자를 직접 사용하고 발전시킨 지역사회의 관심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다. 전통문자들에 대한 외면은 단순히 문자자체의 소멸이 아닌 전통문자들로 기록된 남부술라웨시의 문화 및 지식유산의 사멸과 연관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부기스, 마카사르, 문자학, 술라파으파문자, 장양장양문자, 세랑문자, 빌랑빌랑문자

25) 1957년 11월 25-30일 남부술라웨시에서 개최된 ‘동남·남부술라웨시 교사협의회 (Konferensi PGRI se-Sulawesi Selatan dan Tenggara)’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들은 신세대들의 술라파으파문자 교육을 위해 간소화한 철자법을 제정했다.

26) 다음 사이트 참조.

<http://www.ujungpandangekspres.com/index.php?option=read&newsid=49485>

〈참고문헌〉

- 권중성. 1999. 『문자학개요』. 서울: 한국문화사.
- 조태영. 2012a. "부기스-마카사르 룬타라문자 사용의 전통과 사멸, 그리고 교육." 『외국어교육연구』 26(1): 131-150.
- _____. 2012b. "인도네시아 인도문자의 사용과 발전." 『남아시아연구』 18(1): 143-168.
- _____. 2012c. "문기전통과 한글전파." 『교수신문』 9월 3일.
- 최준식. 2007. 『세계가 높이 산 한국의 문기』. 서울: 소나무.
- Anceaux, J. C. 1988. *The Wolio Language Outline of Grammatical Description and Texts (Second Edition)*.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Badan Koordinasi Survei dan Pemetaan Nasional. 2001. "Bahasa Nasional dan Bahasa Daerah." <http://www.bakosurtanal.go.id/perpres/Bab%2011.pdf/> (검색일: 2015.04.09)
- Banda, Maria Matildis. 2005. *Deskripsi Naskah dan Sejarah Perkembangan Aksara Ende Flores Nusa Tenggara Timur*. Jakarta: Djambatan.
- Caldwell, Ian. 1988. "South Sulawesi AD 1300-1600: Ten Bugis Texts." Ph. D. Dissertation.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ho, Taeyoung. 2010. "Tradisi Bahasa Tulisan di Sulawesi Selatan." *Jurnal Lensa Budaya* 5(2): 13-21.
- _____. 2011. "Sebuah Refleksi: Dua Tahun Penggunaan Han-Geul di Masyarakat Cia-Cia." *Kendari Pos* July 22, p. 4.
- _____. 2012. *Aksara Sérang dan Perkembangan Tamadun Islam di Sulawesi Selatan*. Yogyakarta: Penerbit Ombak.

- Coulmas, Florian. 1989. *The Writing System of the World*. Oxford: Basil Blackwell, Inc.
- _____. 1996.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Writing System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Cummings, William. 2014. "Rethinking the Translation in Translation Studies: Questions from Makassar, Indonesia." Hung, Eva and Wakabayashi, Judy (eds.), *Asian Translation Traditions*. New York: Routledge. 195-210.
- Crawfurd, John. 1820. *History of the Indian Archipelago*. Edinburgh: Constable.
- _____. 1856. *A Descriptive Dictionary of the Indian Islands and Adjacent Countries*. London: Bradbury & Evans.
- Durie, Mark. 1996. "Ancient Links: The Mystery of South Sumatra." Kumar, Ann and McGlynn, John H.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247-252.
- Fachruddin, Ambo Enré. 1999. *Ritumpanna Welentrnge: Telaah Filologis Sebuah Episoda Sastra Bugis Klasik Galigo*. Jakarta: Yayasan Obor.
- Fischer, Steven Roger. 2001. *A History of Writing*. London: Reaktion Books Ltd.
- Gelb, Ignace Jay. 1952. *A Study of Writing: The Foundation of Grammat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diati, Endang Sri. 2002. "Perkembangan Aksara di Indonesia." Hardiati, Endang Sri (eds.), *Pameran Perkembangan Aksara di Indonesia*. Jakarta: Museum Nasional Indonesia. 1-6.
- Harian Ujungpandang Ekspres. 2010. "Program PSGBD Unhas-Pemprov

- Diminati.” <http://www.ujungpandangekspres.com/index.php?option=read&newsid=49485> (검색일: 2015.04.28)
- Hunter, Thomas M. Jr. 1996. "Ancient Beginnings: The Spread of Indic Scripts." Kumar, Ann and McGlynn, John H.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3-12.
- Hussein, Ismail. 1992. *Sejarah Pertumbuhan Bahasa Kebangsaan Kita*.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ISO 15924. 2014.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scripts.” <http://www.unicode.org/iso15924/codechanges.html> (검색일: 2015.04.23)
- Kozok, Uli. 1996. "Bark, Bones, and Bamboo: Batak Traditions of Sumatra." Kumar, Ann and McGlynn, John H.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231-246.
- Kridalaksana, Harimurti. 1993. *Kamus Linguistik*. Jakarta: PT Gramedia Pustaka Utama.
- Lewis, M. Paul. 2009.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Sixteenth Edi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 Matthes, B. F. 1858a. *Boegineesch heldendicht op Daeng Kalabu*. Makassar: Muller, Schmidt.
- _____. 1858b. *Makassaarsche spraakkunst*. Amsterdam: Muller.
- Mattulada. 1985a. "Kebudayaan Bugis-Makassar." Koentjaraningrat (eds.), *Manusia dan Kebudayaan di Indonesia*. Jakarta: Penerbit Djambatan. 259-278.
- _____. 1985b. *La Toa: Satu Lukisan Analitis Terhadap Antropologi Politik Orang Bugis*.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 Press.
- Mills, Roger F. 1975. "Proto South Sulawesi and Proto Austronesian Phonology." Ph. D. Dissert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 Moain, Amat Juhari. 1996. Perancangan Bahasa: Sejarah Aksara Jawi. Kuala Lumpur: Dewan Bahasa dan Pustaka.
- Nomay, Usman. 2009. Orang Melayu di Makassar Abad XVI-XVII. Yogyakarta: Penerbit Ombak.
- Noorduyn, Jacob. 1993. "Variation in the Bugis/Makasarese Script."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Manuscript of Indonesia* 149(3): 533-570.
- Ong, Walter J. 1982. *Orality and Literacy*. New York: Methuen, Inc.
- PaEni, Mukhlis. 2003. Katalog Induk Naskah-Naskah Nusantara Sulawesi Selatan. Yogyakarta: Gadjah Mada University Press.
- Pelras, Christian. 2006. *Manusia Bugis*. Jakarta: NALAR.
- Pfeiffer, Rudolf. 1976.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1300 to 1850*. Oxford: Clarendon Press.
- Raffles, Thomas Stamford. 1817. *The History of Java*. London: Black, Parbury and Allen.
- Rahman, Ahmad and Salim, Muhammad. 1996. *Pelestarian dan Perkembangan Aksara Lontarak di Sulawesi Selatan*. Jakarta: Departemen Pendidikan dan Kebudayaan.
- Rahman, Nurhayati. 2008. *Retna Kencana Colliq Pujie Arung Pancana Toa 1812-1876: Intelektual Penggerak Zaman*. Makassar: La Galigo Press.
- Robinson, Andrew. 1995. *The Story of Writing*. London: Thames and Hudson.

- Saussure, Ferdinand de. 1983.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lated by Harris, Roy. London: Gerald Duckworth.
- Schmitt, Alfred. 1980. *Entstehung und Entwicklung von Schriften*. Köln: Böhlau.
- Sewang, Ahmad M. 2005. *Islamisasi Kerajaan Gowa Abad XVI sampai Abad XVII*.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 Syarifuddin, Daeng Kulle and Zainuddin, Tika. 2003. *Aksara Lontara Makassar*. Sungguminasa Gowa: Dinas Pendidikan Nasional Kabupaten Gowa.
- Tol, Roger. 1996. "A Separate Empire: Writings of South Sulawesi." Kumar, Ann and McGlynn, John H. (eds.), *Illuminations The Writing Traditions of Indonesia*. New York: Weatherhill, Inc. 213-230.
- Wikipedia. 2015. "Pegon Alphabet." http://en.wikipedia.org/wiki/Pegon_alphabet (검색일: 2015.04.30)
- _____. 2015. "Sulawesi." <http://id.wikipedia.org/wiki/Sulawesi> (검색일: 2015.04.18)
- _____. 2015. "Sultan Hasanuddin." http://id.wikipedia.org/wiki/Sultan_Hasanuddin (검색일: 2015.04.25)
- Zuhdi, Susanto. 2010. *Sejarah Buton yang Terabaikan Labu Rope Labu Wana*. Jakarta: PT Rajagrafindo Persada.

(2015.05.05.투고, 2015.08.10.심사, 2015.08.27.게재확정)

<국문초록>

남부술라웨시 전통문자의 형성과 역할

조 태 영
(한국동남아연구소)

본고는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종류의 전통문자인 술라파오파문자, 장양장양문자, 세랑문자, 그리고 빌랑빌랑문자의 기원과 발전과정의 배경, 유형적 특징, 그리고 각 문자들의 사용위치에 대해 조명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슈미트의 문자단일기원설을 주축으로 전개된다. 7세기경 남부술라웨시에 처음 소개된 문자의 개념은 동부칼리만탄과 남부수마트라에서 앞서 사용된 팔라와문자로부터라는 가설이 지배적이다. 팔라와문자를 통한 문자의 개념은 부기스인들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사각형태안에서 재정립되어 술라파오파문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4세기부터 널리 사용된 술라파오파문자의 유형적 특징은 인접한 마카사르사회의 장양장양문자 정립에 재차 영향을 주었다. 장양장양문자는 술라파오파문자의 유형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문자소의 외형은 닭(鷄)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다. 이후, 17세기 초 이슬람이 남부술라웨시에 유입되자 이슬람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아랍문자에 기초한 세랑문자가 출현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19세기에는 술라파오파문자의 유형과 아랍문자의 문자소를 조합한 또 다른 문자인 빌랑빌랑문자가 출현하였다. 부기스 왕족출신인 출릭 푸지에(Colliq Pujie)는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로부터 부기스 왕국의 공문서를 보호할 목적으로 비밀문자인 빌랑빌랑

문자를 창안한 것이다. 남부술라웨시의 네 가지 전통문자들 중 어미 문자격인 술라파으파문자가 지닌 전통성은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와 넓은 사용영역을 통해 그것의 확고한 위치를 확립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래로부터 남부술라웨시에서 네 가지 종류의 전통문자가 발전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역동적이고도 남다른 문식성을 나타내준다.

주제어: 부기스, 마카사르, 문자학, 술라파으파문자, 장양장양문자, 세랑문자, 빌랑빌랑문자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Role of Indigenous Writings in South Sulawesi

Tae-Young Cho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This paper describes the origin, the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 and the position in fields of the use of indigenous writings in South Sulawesi, namely *Sulapaq Eppaq*, *Jangang-jangang*, *Sérang* and *Bilang-bilang*. The theory of monogenesis of writing claimed by Schmitt is focused to proceed this paper. The *Pallawa* script in East Kalimantan and South Sumatra is assumed as the first one to introduce the concept of writing into South Sulawesi in the seventh century. The concept of writing, afterward, was established in the four-cornered form representing Buginese' world view to form *Sulapaq Eppaq* script which had started being widely used since the fourteenth century. After this, the *Sulapaq Eppaq* script's typological structure was the basis for the production of *Jangang-jangang* script in Makassarese society. The graphemes, however, were modeled on rooster' outward appearance. When Islamic civilization was introduced into South Sulawesi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the Arabic-based *Sérang* script emerged in the Islamic cul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 another script was invented by combination of the *Sulapaq Eppaq*' typological form and

the Arabic script' graphemes, namely *Bilang-bilang* script. Colliq Pujié, who was the inventor from the Buginese royal family, made the script in order to prevent the contents of official documents of the Buginese Kingdom from being exposed to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he traditional strength of the *Sulapaq Eppaq* script as the first writing system resulted in wide use over various social areas in the secured social position. In any case,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four scripts represent the dynamical strength of literacy in South Sulawesi.

Key words: Bugis, Makassar, Grammatology, *Sulapaq Eppaq* script, *Jangang-jangang* script, *Sérang* script, *Bilang-bilang* script

